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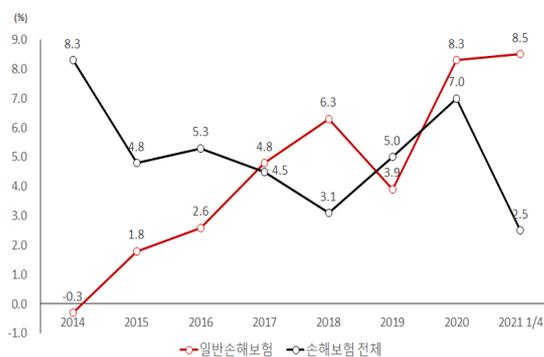
김세중 연구위원, 최원 수석연구원

요약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손해보험의 위험담보가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임. 향후 4차 산업 부각에 따른 신규 리스크 확대와 리스크 관리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사업 모형 출현 등이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임. 이에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서 일반손해보험이 손해보험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언더라이팅 역량 강화와 신규위험 발굴 및 상품 개발 노력이 필요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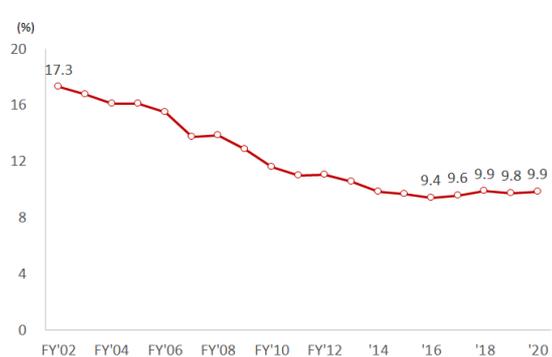
- 2020년 이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체 손해보험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던 손해보험 내 비중도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20년 일반손해보험 성장률은 8.3%로 전체 손해보험 성장률 7.0%에 비해 높았으며, 2021년 1/4분기 또한 전년 동기 대비 8.5% 성장하면서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각각 5.3%, 6.3%)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중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장기손해보험 대비 낮은 성장세로 인해 2002년 17.3%에서 2016년 9.4%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나,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2020년 9.9%로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일반보험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특종보험 등의 세부종목으로 나뉘며, 2020년 일반보험 내 비중은 각각 2.7%, 7.0%, 20.1%, 70.2%임
 - 특종보험은 책임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기타보험 등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됨

〈그림 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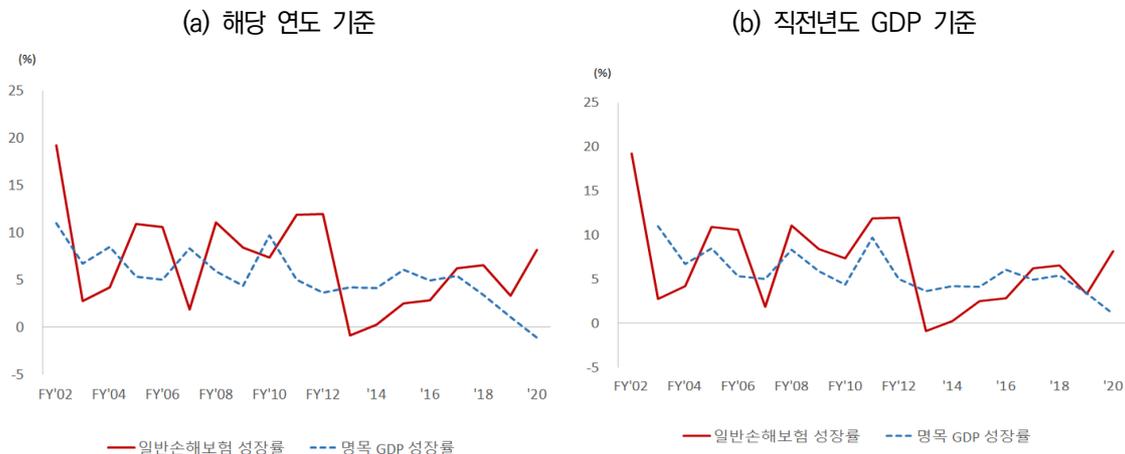
〈그림 2〉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비중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일반손해보험은 대부분 기업성 보험으로 경기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일반손해보험 성장률은 명목 GDP 성장률에 1년 정도 후행하며 유사한 추세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음
 - 일반손해보험 중 화재보험과 보증보험은 신규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건설회사의 이행보증보험 등을 통해 건설경기에 민감하고 해상보험 또한 수출입 물동량 및 조선수주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종보험의 종합보험 또한 경기변동에 민감함
 - 일반손해보험과 명목 GDP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는 0.27로 경제성장률 변화가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나, 1년 시차를 두고 계산한 상관관계는 0.38로 상당히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일반손해보험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과 시차를 보이는 것은 일반손해보험의 보장기간이 보통 1년으로 경기 충격 후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조정에 1년 정도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됨

〈그림 3〉 명목 GDP와 일반손해보험 장기 성장률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

- 그러나 최근에는 실물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일반손해보험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구조 변화, 신규 보장영역 출현 등으로 일반손해보험의 경기 민감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일반손해보험 성장 추이가 실물경제와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을 감안할 때 2020년과 2021년 1/4분기 일반손해보험의 높은 성장세는 2019년과 2020년 실질GDP 성장률이 각각 2.0%, -1.0%인 부진한 상황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는 기존 제조업 및 건설경기와 상관관계가 적은 신사업 영역의 확대와 배상책임 강화와 같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에 따라 일반손해보험 위험담보가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임
- 일반손해보험 시장에서는 인공위성보험, 배상책임보험, 휴대폰 보증보험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보장영역이 부상하고 있으며, 키포드, 드론과 같은 뉴모빌리티 산업의 도래와 반력동물 증가에 따라 관련 의무보험도 확대되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위성보험은 해상보험¹⁾의 하나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인공위성 및 우주발사체 발사 시점과 연계하여 원수보험료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산업 발달에 따른 시장 확대가 전망됨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의료 관련 분쟁 증가, 기업에 대한 소송을 용이하게 하는 법률 발의 등의 영향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보증보험에서는 최근 휴대폰 보증보험 비중이 확대된 바 있음
 -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관련 부처에서는 전동킥보드 의무 보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2월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5품종²⁾ 맹견에 대하여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 앞으로도 일반손해보험은 4차 산업 부각에 따른 신규 리스크 보장 확대, 리스크 관리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모형, 집단위험 확대에 따른 보장 필요성 증가 등을 통해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의 전통적 제조업 및 건설경기 민감도 약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기존의 제조 및 건설업 경기, 수출입 물동량 변화 등에 기반하였던 일반손해보험의 위험담보는 4차 산업의 도래와 함께 우주산업 위험보장, 뉴모빌리티 위험보장, 새로운 전문직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신규 리스크에 대한 보장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임
 - 또한, 배상책임에 대한 법률 강화 등으로 인해 일반손해보험의 보장영역은 사고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보전에 국한하지 않고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위험 관리 서비스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자연재해, 전염병, 사이버위험 등과 같은 집단위험 증가는 해당 위험에 대한 보장 방안 마련을 통해 장기적인 일반손해보험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일반손해보험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성장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손해보험산업은 이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신규 영역을 발굴하고 언더라이팅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임
- 일반손해보험은 손해보험산업 고유의 영역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제3보험인 장기보험의 고성장으로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의 10%에 불과한 비중이 머물면서 부차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음
 - 그러나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신규 보장영역 증가, 새로운 위험의 등장에 따른 의무배상보험 확대 등의 근본적인 환경 변화와 함께 새로운 성장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틈새시장의 출현도 예상됨
 - 손해보험산업은 일반손해보험을 둘러싼 긍정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신규 영역을 발굴하고 언더라이팅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임
 - 디지털산업의 확대로 소규모 벤처기업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기업에 대한 종합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예가 될 수 있음

1) 해상보험에는 선박보험, 적하보험, 해양책임보험, 해양종합보험, 운송보험, 항공보험, 위성보험 등이 포함됨
 2)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로트와일러, 도사견